

지역 매 아 리

인덕두레농장 본격 운영

김제시, 유기질비료 지원 15억 투입

김제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을 위한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유기질비료 93만포를 2월부터 농가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해 12월4일까지 신청접수 받은 유기질비료 신청농가 6,170호에 대해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비료공급물량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132만포 신청 대비 70.5% 정도인 93만포를 2월부터 지역농협 및 영업조합을 통해 각 농가로 공급한다.

유기질비료는 1포대(20kg)당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700원, 부속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부정행위 소문이 있어 '농업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읍면동 마을이장 교육과 비료 공급 현지점검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근절 할 계획이다.

김태환 농업정책과장은 "유기질비료의 원활한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선정된 농가에 대해 10월 말까지 공급을 마치고 포기물량에 대해서는 신청누락농가에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예비 농업인 선발해 시설·생산 등 지원 2월 중순부터 추진...사회적농업 협업공간 활용

완주군이 소양 인덕두레농장을 경영실습농장으로 운영한다.

완주군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자립운영이 어려워진 소양 인덕두레농장을 (예비)귀농인 경영실습농장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농촌정착 초기 영농기반 마련이 어려운 예비 농업인을 선발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업분야 시설하우스 경영을 희망하는 (예비)귀농인에게 실제 시설을 빌려주고 원하는 작목을 직접 생산, 가공, 공동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또한, 현장경험이 부족한 대상자들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민 실습 멘토링 및 영농교육 과정을 추가로 지원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일부는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및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돌봄, 치유,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협업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레농장이 자율적으로 귀농인 영농실습농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에 두레농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귀농자와 농업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소양 인덕두레농장을 2월 중순부터 경영실습농장으로 운영한다.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용자 신청 하세요”

완주군, 이자율 1%로 연중 접수

농어촌공사 강병문 조성이사

동진지사 관내 안전관리 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 강병문 기반조성이사는 지난 17일 박종만 전북지역본부장과 함께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 관내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12개년에 걸쳐 45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제시 금산면과 봉남면 일원 534ha에 농촌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강병문 기반조성이사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작업장에 강도 높은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사업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후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의 가물상습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후, 해당 지역에 필요한 추가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소득사업 지원 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용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용자 한도는 최대 농업인 1억원, 농업법인인 5억원이다.

용자 기간은 사업에 따라 단기 2년에서 장기 5년까지 가능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1%로 나머지 이자 차액은 완주군에서 보전한다. 사업 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

금으로 경제작목, 축산 등 생산소득사업이나 가공, 유통 및 산지수매사업 등이며 이외에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도 용자가 가능하다.

용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전북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에서 신용도 및 담보 능력 등 대출상담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확정은 농촌소득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자가 확정되며 이후 전북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에서 용자받을 수 있다.

농촌소득 용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063-290-3216)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촌소득사업은 초기 투자 자금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을 용자에 농민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며 "특히 금년부터는 유통 수매 등의 사업까지 대상 영역을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용자 사업을 활용해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19년 시민 정보화교육 무료 운영

김제시는 지역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1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시민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과정별로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컴퓨터 기초

및 Window7,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활용과 SNS 등 8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 편성하여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교육시간은 오전반

(10:00~11:30), 오후반(13:30~15:00)으로 운영, 김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김제 시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baem.gimje.go.kr)에 신청하거나 정보통신과(☎540-4123, 3326)로 문의하거나 시민정보화교육장(시 보건소 3층)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백세체조를 운영한다.

김제시보건소, 건강백세체조 운영

6월 30일까지 120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대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희희)는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120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민 대상으로 건강백세체조를 운영한다.

건강백세체조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평소 농사일로 굳어진 근육과 다리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시간 동안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 요가 운동이 진행된다.

아울러 어르신의 통합적 건강관

리를 위해 개인별 혈압, 혈당 측정과 신체계측이 사전에 이루어지며 급원·절주 교육, 우울증 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건강백세체조는 작년 100개 경로당에서 운영되었으며 올해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220개 경로당에 확대 보급되어 진행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 다리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시간 동안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 요가 운동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사진규격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규정을 삭제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여권 등 다른 신분증 사진 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선

<p>현행</p> <p>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p>	<p>개선</p> <p>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p>
---	--

완주군, 2월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완화돼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된다.

완주군이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

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여권사진과 규격이 달라 사진을 2번 찍어야하는 불편함과 경제비용을 줄이고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새롭게 바뀐 정부 정책을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